



<http://knta.or.kr>

Q & A

결핵에 걸리면 환자들은 당혹스러워한다. 결핵이 사라진 병인줄 알았다거나 아예 어떤 병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증상 하나에도 예민해지게 마련.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환자들의 질문과 의료진의 답변을 통해 결핵 치료의 실마리를 제공해보는다. <편집자주>

Q 10년 전 폐결핵으로 6개월 약 먹고 완치판정 받은 현재 33세 남자입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기침할 때 가래에 피가 조금 나왔습니다. 주말 내내 쉬었는데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기침, 가래, 열이 있습니다. 11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접촉해도 될까요? 혹시 재발인 경우 내성일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아예 내성 검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1~2주면 되는 급속내성검사가 있는데 병원에서는 왜 여전히 일반내성검사를 하는 건가요?

A 폐결핵 발병 여부를 검사 중인 상태로 생각되며 가능성이 있다면 아기와와의 접촉은 우선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제 감수성검사는 필요하나 객담에서 결핵균이 자라야 할 수 있으며 보건소나 일반병원에서는 자체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결핵 협회 등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신속내성 검사는 일차약 중 아이나, 리팜핀 두 가지 약물에 대한 내성 여부를 빨리 알 수 있

어 두 약제에 대한 내성 여부를 빨리 확인해야 하는 경우 시행합니다. 보통의 내성검사는 모든 결핵약에 대해서 시행하며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완치 판정 받은 지 한 달째인데 감기 증상이 있어서, 혹시나 재발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재발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따로 있나요? 만약 지금 재발했다면 초기와 같이 전염성이 있어서 2주간 약 복용할 때까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나요? 재발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과 접촉하고 지내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더 걱정됩니다.

치료 후 재발률은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내가 가장 높으나 처방대로 치료를 잘 하였다면 완치 후 재발률은 높지 않고 감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결핵 재발은 아닙니다. 증상이 계속되면 다시 진료를 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 했다면 전염성 여부는

처음과 같이 객담 검사 결과와 약물 치료기간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Q-3 폐결핵으로 40일째 약 복용중입니다. 엄마가 폐결핵이면 현재로는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기(2세)도 결핵에 감염된 걸로 봐야하나요? 지금 예방약 복용 중인데 클 때까지 항상 결핵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건지, 부모 입장에서 정말 속상합니다.

A-3 소아는 감염되면 발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족 중 결핵 환자가 있으면 피부반응 검사가 음성이라도 때로는 예방화학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소아에서의 예방화학적 치료는 대부분 안전하며 감염된 경우 발병을 막고자 하는 것이고 평생 결핵 위험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4 폐결핵을 진단받고 5개월째 결핵약을 복용 중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직업이 서비스업이다 보니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게 나 있어서 걱정입니다. 피부과 진찰을 받고 약도 먹어보고 발라보고 해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있어 우울증약도 복용 중인데 피부 때문에 대인기피증세까지 보입니다. 결핵약의 개수도 많이 줄었는데 얼굴은 가라앉질 않네요 그래서 이번엔 피부과에서 프락셀레이저 치료 같은 걸 받아볼까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A-4 담에서 균이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흉부 엑스선 등으로 폐결핵으로 진단된 경우이며 정해진 기간을 치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약으로 인한 피부증상은 심한 경우 약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히 미용적인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약물 치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필요하다면 상담하신 후에 피부약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장애가 심한 경우는 위내시경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5 임신 6개월에 오른쪽 목 임파선이 부어서 출산 후 검사해보니 임파선 결핵이었습니다. 폐결핵검사는 음성이었습니다. 아기는 태어난 지 지금 80일쯤 되었고, 태어나서 1주일 후에 BCG접종을 했습니다. BCG 접종 한 달 후 피부반응검사를 하였더니 음성으로 나왔고 엑스레이 사진상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방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A-5 내용으로 보서는 아기는 예방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생각되나 엄마가 치료하시는 병원에서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파선 결핵은 치료 중에도 임파선이 커지거나 병변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주변 구조물의 압박이 있을 정도로 커진다면 일시적인 스테로이드 사용이나 수술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담당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